

행정연구에서의 해석적 연구과정의 탐색*

박석희**, 남지원***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행정적 활동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복잡한 맥락을 지닌 행정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행정연구에서의 해석적 연구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먼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반실증주의적 인식론에 토대를 두는 해석적 연구방법의 이론적 배경, 특징과 장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해석적 연구방법론이 채택하고 있는 연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해석적 연구방법을 통해 획득된 질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적 자료는 기본적으로 표상(representation)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자료의 해석과 자료의 수집과정이 단선적이기보다 역동적 무도(dynamic dance)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석적 관점을 적용하는 분석기법 중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근거이론접근은 질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해석적 연구과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해석적 연구, 반실증주의, 근거이론접근,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09년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며, 2008년도 정부지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B00231-100450).

** 제1저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행정학)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공공관리론, 공기업론, 관료제론, 연구방법론이다(nice113@catholic.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성과평가, 인적자원관리, 교육정책, 연구방법론이다(anam@fsu.edu).

I. 머리말: 해석적 접근이 왜 중요한가?

그 동안 논리실증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둔 주류적 관점의 전통행정학은 행정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을 지향해 왔다(소영진, 2004: 3). 즉, 전통행정학은 산업화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효율성, 도구적 합리성, 전문가주의, 기능주의 인식론,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한 관리기법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관리주의적 관점은 중앙 집권적이고, 하향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켰고,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었다(Jun, 2004: 22, 24). 조직은 객관적 결과, 직무성과, 권위의 수직적 조정 등을 강조함에 따라 시민의 요구, 하위직의 순응과 같은 다양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전통행정은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기대된 문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부적절하거나, 정책문제가 정책전문가의 입장에서 너무 단순하고 좁게 규정되거나, 정책집행조건이 불충분하거나, 정책목적이 비효율적이거나, 조직이 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정책전문가나 고위관리자들이 변화의 목적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대중의 참여나 협조가 부족할 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시민참여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Gawthrop, 2002; Box, 1998; Denhardt and Denhardt, 2003; Kettl, 2002). 따라서 행정은 시민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해석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행정연구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 대한 상호 이해와 비판적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석적 관점에 토대를 둔 행정학의 연구과정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에 대해 탐색한다. 해석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를 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보다 용이하게 사회적 실체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평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동안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등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들은 많이 발표되어 왔으나, 행정연구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행정 실무나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현실에서 출발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석적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해석적 연구방법론의 이론적인 기반들, 즉 논리실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적 연구방법과 차별화되는 해석적 연구의 이론적 배경, 특징과 장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해석적 연구방법론이 채택하고 있는 연구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해석적 연구방법을 통해 획득된 질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적 자료는 기본적으로 표상(representation)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자료 수집과 해석과정이 단선적이기보다 역동적 무도(dynamic dance)(Hesse-Biber et al., 2006: 74-76)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4장에서는 해석적 관점을 적용하는 분석기법 중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설명하는 범주들을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것을 분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근거이론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근거이론접근은 관찰되고,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행정현상에 있어 해석적 연구과정의 접점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해석적 연구의 포괄적 접근

1. 해석학 연구의 의의와 본 연구에서 “해석”의 의미

해석학 연구는 19세기 성서를 해석했던 독일 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남궁근, 2004), 풍부한 관점을 지닌 다학문적 지평이라는 점에서 지식형성 과정에 대한 포괄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강조한다. 해석적 연구는 광범위한 인식론적, 이론적,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해석적 연구가 반성적(reflexive)이며, 과정지향적(process driven) 연구를 통해 이론, 방법, 연구자와 연구대

상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적 특수성이 있고, 이론적으로 짜여진(theory-enmeshed)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과정의 포괄적 특성이란 연구주제 선정부터 연구결과 작성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다양한 국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해석적 연구는 오랜 기간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인과모형에 의한 설명보다는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의 창조를 강조한다.

비록 해석적 연구방법이 다양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해석”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체의 본성에 관한 해석적 접근법(interpretative approach)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의 ‘해석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 질적 연구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즉, 사회적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변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검정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각 개인들이 사회적 실체의 본성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각 개인이 사회적 실체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해석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해석적 연구는 텍스트, 즉 언어와 담론에 관심을 두고(윤건수, 2008: 187), 문장과 언어에 담겨 있는 일정한 주제(theme or thematic category)¹⁾를 발견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주제를 복수의 연구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코드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adamer는 해석적 이해는 해석자와 텍스트 사이의 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합의 또는 ‘의견의 일치’로써 지평의 융합(fusion of horizons)으로 부르고 있다(오명호, 1995; 조용환, 2008)

그 동안 양적 연구는 경성과학(hard science) 혹은 좋은 과학(good science)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점해 왔다. 논리실증주의와 후기논리실증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좋은 과학’은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를 의미하며, 해석적 연구방법은 방법론적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증주의에 의하면 사회적 실체란 객관적 연구자에 의해 기술되고, 설명되거나, 후기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근사하게 파악될 수 있는 연구자의 밖(out there)에 존재하는 외부적 실체로 이해되어 연구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가치개입을 배제한다(Creswell, 1994; Brower et al., 2000 재

1) 양적 연구는 사회현상에 대한 일정한 패턴의 발견과 예측성을 강조하지만, 해석적 연구는 사회적 의미 이해와 해석을 강조하며, 주제 혹은 주제범주의 개발은 질적 자료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 이에 반해 해석적 연구는 공통적으로 응답자의 언어와 관점에 기반해서 주제와 프레임을 발견하고 자료를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Denzin and Lincoln(1998)은 질적 연구의 세 가지 해석적 패러다임으로 구성주의적 해석론(constructivist-interpretive), 비판론(criticism), 페미니즘(feminism)을 강조하였고, Newman (2003)은 세 가지 질적 패러다임으로 실증주의, 해석론, 비판론을 지적하였다. 각각의 패러다임은 실체와 개인의 본성(존재론), 이론의 유형(방법론), 무엇이 지식을 형성(constitute)하는지에 관한 입장(인식론)에 있어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가령 구성주의 혹은 해석론에 입장을 취할 경우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된 이야기와 의미로 구성된 주관적 실체를 가정하며, 객관적 사회적 실체의 존재를 부정한다. 사회적 실체는 실제(real) 혹은 진실(truth)보다는 표상되는 것(representational)으로 이해된다.

2. 이론, 연구방법, 방법론과 인식론

전통적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 획득된 자료는 경성이며 과학적인 것이고, 일반화 가능하고 대표성 있는 것(representative)으로 간주된 반면, 질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성이며 주관적이고, 표상적이며²⁾ 혹은 구성된 것(constructed)으로 간주되었다.³⁾ 그렇지만 해석적 이론에 의하면 지식은 사회적 실체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 형성되며, 사회적 실체의 상이한 측면들을 해석의 과정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다. 특히 해석적 접근은 특정의 이론적 관점을 배척하기보다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해석이론, 현상학, 민속학방법론,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비판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적 전통들을 포괄함으로써 복잡한 사회 현상 속에서 더욱 풍부한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2) 인간의 지각과 행동, 경험이 표상화된 결과는 언어를 비롯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공물을 들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물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학의 본래 취지다. 따라서 해석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 소위 사유체계나 행동방식도 해석의 대상인 '텍스트'로 보며, 해석학의 범주는 세계관, 문화, 미디어, 인간존재에 관한 연구 등을 다룰 정도로 다양하다(윤건수, 2008: 187-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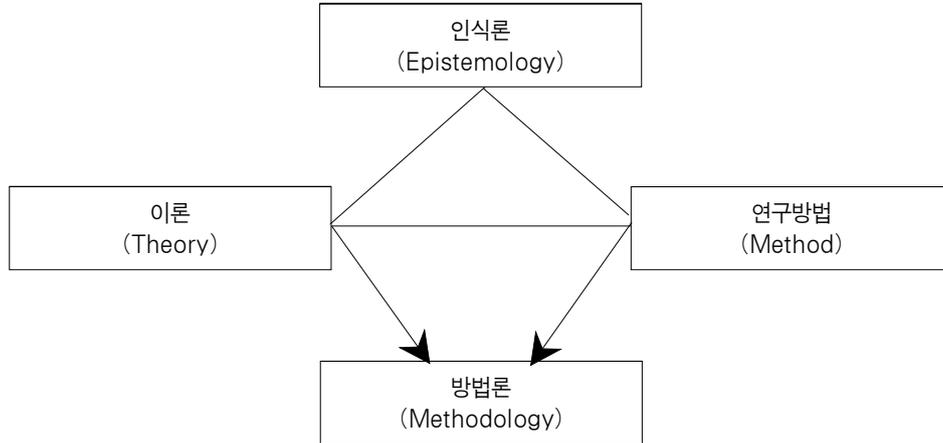
3) 해석적 연구의 가치는 그것이 복제될 수 있느냐(replicabl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특한(unique) 주제에 대해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 지식을 더해줄 수 있느냐에 있다.

인식론은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식론적 신념은 이론적 프레임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론은 경험적으로 조사되어 온 것 이상의 사회적 실체 또는 그것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며, 이론은 연구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적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이론을 창출하고, 형성하며, 정교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해석적 연구 수행에 있어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해석적 연구자는 단지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창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연역적 방법을 강조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해석적 연구는 귀납적 접근을 강조하기 때문에 필드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도 맞닿아 있다.

흔히 연구방법을 논의할 때 그것은 자료수집방법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연구방법은 인식론 및 이론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특히 해석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방법과 이론의 연결은 더욱 강조된다. 즉, 해석적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민속학방법론(참여관찰 등), 심층면접, 스토리텔링, 핵심집단면접, 사례연구, 담론분석 및 내용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연구문제 형성부터 자료 분석과 해석에 이르는 연구설계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방법론은 이론과 연구방법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Harding은 방법론은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이라고 설명하였다(1987: 3).

요컨대 방법론(methodology)은 일정한 인식론적 토대를 전제로 이론(theory)과 연구방법(method)을 연결 짓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즉, 각 연구자가 취하는 연구방법론은 논리실증주의 혹은 해석학적 인식론 기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인식론적 기반에 따라 비판이론, 현상학, 해석학,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등의 이론적 입장과 연구방법이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다. 즉, 방법론은 이론, 방법, 인식론의 통합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은 연구과정을 통해 전략적이지만 가변적인 지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론과 방법을 통합한다. 가변적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의 인식론적 신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수행 중에 방법론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는 연구가 수행되는 맥락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해석적 연구에서 이론과 연구방법의 가교로서 방법론의 위상



출처: Hesse-biber et al.(2006: 21)

3. 해석적 인식론의 의미

해석적 연구는 왜 사회적 실체가 그렇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일반화를 지향하는 인과모형적 설명보다 대체로 사회적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보편적 시스템으로부터 인과모형적 설명에 의한 복제를 강조하는 반면 해석적 연구에서는 개별 행위자들 혹은 그들 간의 의미작용에 관심을 둔다. 실증주의 혹은 후기실증주의에서 강조하는 객관적 인식론은 연구자가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체는 연구과정과 독립해서 존재하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지식발견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연구자와 분리되어 존재하며,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 연구자에 의해 객관적인 복제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본다(Burrell & Morgan, 1979; Creswell, 1994; Rubin & Rubin, 1995; Schutt, 1999; Brower et al., 2000 재인용). 이에 의하면 사회적 실체는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 연구자에 의해 경험적으로 연구되고 검증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물론 연구자도 연구의 복제를 위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해석적 연구방법은 전체주의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취하며, 의미창출과 해석을 통한 이론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증주의와는 다른 인식론적

기반을 갖는다. 해석적 연구는 탐색적 지식, 기술적(記述的) 지식 창출을 모두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사회적 실체에 대한 유일한 인과모델의 중요성을 배척한다. 해석적 연구는 오히려 연구주체의 선정부터 연구결과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이 보여주는 전체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해석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실체의 본성을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해석적 연구는 언어든 행동이든 드러나는 표상에 관해서 해석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석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실체에 관해 주관성이 아닌 상호주관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물론 해석적 관점을 강조하는 연구라고 해도 사회적 실체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인식론적 지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Gergen, 2007), 해석적 연구에서 사회적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실체의 구성에 대해 유심론적 극단이 있는가 하면 객관주의와 매우 유사한 정도의 인식론적 정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적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해석적 인식론은 최소한 사회적 실체가 상호주관적 이해와 해석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석적 연구는 언어든 행동이든 드러나는 그 표상에 관해서 해석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Yanow et al., 2006; Lakoff and Johnson, 2003).

해석적 연구가 해석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실체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연구문제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문제는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사회적 실체의 본성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연구문제의 선정은 연구방법의 유형을 결정지으며, 반대로 특정한 연구방법의 선호가 연구문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구문제 선정과 구체화에 있어 해석적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는 연구자의 관심영역과 연구문제 선정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석적 연구에서 문헌검토는 연구과정의 특정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분석적 귀납에 의한 새로운 이론의 발견 시 연구의 후반부에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문헌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Ⅲ. 해석적 연구과정의 전략

1. 해석적 연구의 엄격성 확보방안

1)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

해석적 연구에서의 타당성은 연구의 엄격성(rigorousness) 확보 정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석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Meyer & Rowan, 1977; Granovetter, 1985; Weick, 1993), 객관적 실체와의 일치성(correspondency)으로서의 타당성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이란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를 의미한다. 즉, 해석적 연구에서는 기존 논리실증주의가 강조한 내용타당성, 기준타당성, 구성개념타당성 등과는 차별화된 의미로 타당성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 해석적 연구는 경쟁적 주장이나 해석에 대해 어떠한 연구자의 발견을 주관화하는 형태, 그리고 독자들에게 연구자의 특정한 지식에 대한 강한 논변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⁴⁾

Kvale(1996)는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의 기준으로 연구전문가로서의 타당성(validity as craftsmanship), 의사소통적 타당성(communicative validity), 실천적 타당성(pragmatic validity)을 지적하였다. 첫째, 전문가적 타당성(validity as craftsmanship)은 ‘연구자가 도덕적으로 고결한가(moral integrity)’와 같은 연구자와 연구의 신의(credibility)에 대한 지각의 문제로서 연구자가 사실을 어떻게 조사하였는가 혹은 연구가 어떻게 검토되었는가 등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적 타당성은 검토적 타당성(validity as checking)을 의미한다. 전문가적 타당성의 또 다른 측면은 연구자가 질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즉 해석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주어진 이론적 프레임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신의를 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둘째, 의사소통적 타당성(communicative validity)은 경쟁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성

4) 전통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와 달리 Lincoln & Guba(1986)는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 개념들에 대해 내적 타당성에 대응되는 용어로는 credibility, 외적 타당성은 transferability, 신뢰성은 dependability, 객관성은 confirmability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Brower et al.(2000)은 authenticity, plausibility, criticality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있는 지식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어떠한 발견에 대한 각자의 해석은 많은 연구자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되고 반박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토론과 반박이 연구대상 집단에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의미를 둘러싼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의미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이해에 대한 관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누가 이러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지식을 해석할 권한을 누가 갖고 있으며, 의미에 대한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완전한 합의는 없지만, 연구자들 간 혹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담론이 연구결과의 의사소통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사회과학연구에서 연구는 연구대상과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에서 실천적 타당성(pragmatic validity)은 매우 중요하다. 실천적 타당성이란 발견된 사실이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리고 연구가 수행된 사회적·역사적 맥락 내에서 발생한 변화와 관련된다. 즉, 수행된 연구와 발견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동결과를 발견할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연구의 결과로 발견된 사실이 연구가 수행된 지역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실천적 타당성은 연구대상집단 내의 권력동학(power dynamics)과 관련있다.

한편 전통적 실증주의에서 신뢰성은 반복측정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반면, 해석적 연구에서 신뢰성은 크게 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관성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다(Neuman, 2003). 내적 일관성은 수집된 자료가 합리적인가(reasonable), 수집된 자료들이 모두 일치하는가, 관찰결과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일관성이 있는가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한편 외적 일관성은 관찰결과를 다른 자료원천들과 상호검토(cross-checking) 혹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적 연구에서도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비록 그것이 실증주의 관점과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중요하고 복잡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은 표상 및 일반화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ay and Airasian(2003: 56)은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연구대상과 연구현장의 관계가 완전하게 기술되었는가?, 모든 현장기록이 포괄적이고, 완전 상호언급되고, 엄밀하게 상세히 작성되었는가?, 관찰과 면접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기록되었는가?, 면접자의 훈련이 기록되었는가?, 모든 자료수집 도구의 구성, 계획, 검증이 기록되었는가?, 핵

심 피면접자들이 표상하는 집단과 그들의 공동체 지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핵심 피면접자들이 완전히 기술되었는가?, 조사대상 선정방법이 연구에 적합할 정도로 충분히 기술되었는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2) 타당성 확보수단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

해석적 연구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종 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방법의 통합(methods triangulation)을 채택할 수 있다. 두 가지 연구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면 이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양적 연구방법(설문조사)과 질적 연구방법(면접)을 통합할 수도 있다. 둘째, 동일한 연구문제에 대해 이론적 통합(theoretical triangulation)을 채택할 수도 있다. 셋째, 동일한 연구 내에서 다양한 자료원천을 사용하는 자료통합(data triangulation)을 채택할 수도 있다. 넷째,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를 채택하는 연구자 통합(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활용할 수도 있다.

70년대부터 Denzin, Lincoln, Guba 등 많은 질적 연구자들이 사회과학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심준섭, 2008), 단순히 자료의 결합이나, 방법의 혼합 혹은 연구자의 협업 등의 방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Sydney Tarrow(1995)가 제기하였듯이, 양적 데이터가 부분적이고 질적 조사가 정치적 환경에 의해 막혀 있을 경우와 같이 특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 다각화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⁵⁾

다만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특정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

5) Guba & Lincoln(1994:107)에 의하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그것을 이끄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상에 그 전제가 되는 신념체제(belief system)가 다르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양자의 차이가 단순한 연구방법상의 차이가 아니라, 연구논리상 그 기저가 완전히 다름을 의미한다. 조용환(1999: 104; 109)은 연구방법상의 차이를 넘어, 연구논리상 차이, 즉 패러다임의 차이 입장에서, 소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결합은 두 방식을 "어정쩡하게 결합시켜놓은 경우"라고 비판하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연구기법상 혼합할 수는 있지만 연구논리상 화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 연구는 사실 주장(factual claim)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연구참여자들의 행동의 근거에 대한 해석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실로 독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단순한 자료 통합이나 사람을 통합하는 triangulation은 불필요하다는 Brower (1995)의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독자들로부터 연구자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는 객관주의 인식론이 강조하는 개념으로서의 진실(truth)보다는 연구자, 연구대상집단 및 독자들 간에 형성되는 신빙성(trustworthiness)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해석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편이(researcher bias), 측정편이(measurement bias) 등이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명확하게 측정하거나 통제하고자 하지 않는다. 해석적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는 것은 연구과정에 대한 실증주의적 모형으로의 귀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해석적 연구에서 연구대상 선정

해석적 연구는 작은 표본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즉, 해석적 연구는 연구대상이 그들의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반드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해석적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연구대상 선정방법(sampling)으로 목적표출(purposive sampling) 혹은 판단표출(judgement sampling), 눈덩이표출(snowballing), 이론표출(theoretical sampling) 등이 활용되고 있다. Morse & Field(1997)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적절한 선정이란 연구주제에 대해 가장 타당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신혜영, 2008), 이는 해석적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설동훈, 2007).

첫째, 목적표출과 판단표출은 연구자가 특정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을 주관적 판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특정한 연구문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대상들이 갖는 특성이 연구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층화목적표출을 채택하기도 한다. 둘째, 일정한 논리적 계획 등에 근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우연표출 혹은 편의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연구대상선정방법은 아니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이론표출로서 이는 근거이론접근법의 한 부분으로 자주 활용되는데 이는 이론형성을 위한 자료수집의 과정을 의미한다(Glaser and Strauss, 1967).

해석적 연구에서 분석가는 자료 수집, 코드화 및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다른 표본을 통해서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연구자는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Morse(1995)에 의하면 이론적 포화는 이론표출을 통해 가장 빨리 달성될 수 있고, 누적표출과 편의표출에 의해서는 느리게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작위표출에 의해서는 표본이 이론적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고, 연구대상이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론적 포화가 달성되기 어렵다.

해석적 연구에서 연구대상 선정 등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그 동안 비중 있게 검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연구 종결 이후 검토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윤리는 양적 연구에서도 중요하지만, 연구대상자에 대한 관찰, 면접, 상호 담론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해석적 연구에 있어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해석적 연구에서 연구윤리는 연구결과의 신빙성과 타당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즉, 해석적 연구에 있어 연구문제의 선정, 연구설계와 연구대상 선정방법, 연구자의 연구대상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 연구자가 어떠한 윤리적 입장을 취하는가는 연구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연구결과의 분석과 해석, 최종 연구결과의 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⁶⁾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연구대상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수락을 받는 과정(informed consent)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목적 상 은밀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또한 급진적 문제에 대해 이익상충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연구자는 ‘분할된 충성심(divided loyalties)’을 나타내는 등 윤리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Bell and Nutt, 2002). 이와 관련 Patton이 제시한 연구윤리 체크리스트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는 연구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해당 대상자가 꼭 연구에 참여해야

6) 미국에서도 연구윤리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자 1974년에 의회에서 ‘연방연구법(The National Research Act)’이 통과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구위험보호기구(Office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Risks, OPRR)와 연구대상 보호를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78년에 위원회는 연구윤리기준을 담은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를 발표했고, 1991년에 ‘보통규칙(the Common Rule)’으로 알려진 수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연방에서 연구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들은 연구감독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를 운영하도록 되었다.

하는가?, 연구대상에 대한 비밀보호(confidentiality)의 합리적 수준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설명된 승낙(informed consent)이 필요한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연구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윤리문제에 대한 상담체계가 충분한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Patton, 2002).

3. 해석적 연구의 과정

일반적으로 해석적 연구과정에서 질적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단일의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첫째, 자료준비단계는 자료의 필사(transcribing) 단계로서 연구자는 다양한 연구방법(심층면접, 핵심집단면접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문자화된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관련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다. 해석적 입장에서 보면 필사단계에서 연구자가 자료를 어떤 형태로 혹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이론적 입장과 연구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연구대상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자료탐색 및 자료축소(data reduction) 단계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탐색단계에서 연구자는 각종 문자, 시각, 청각자료를 분석하며, 핵심적인 내용 등을 요약하여 문자, 도표, 그래프 형태 등의 메모를 작성하면서 코드화 작업을 하게 된다. 자료의 코딩과 분석은 주로 근거이론접근⁷⁾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개방형 코딩을 통해 분석과정을 시작하는데, 메모작성을 통해 코드를 범주 혹은 개념의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⁸⁾ 근거이론접근에 의한 분석은 한 줄 한 줄 주의 깊게 읽어 가면서 각 줄, 문장, 단락에 대한 코딩과 메모작성을 통해 핵심적인 범주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작성한 코드는 기술적일 수도 있고, 경우

7) 근거이론은 Glaser and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질적 자료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전략을 제공해 준다. 근거이론접근은 자료수집에서 시작해서 자료에 근거를 두거나 자료로부터 생성되는 이론으로 종료되는데, 이러한 분석과정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거이론 접근은 담화분석(narrative analysis),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등 여러 분석전략의 한 유형일 뿐 유일한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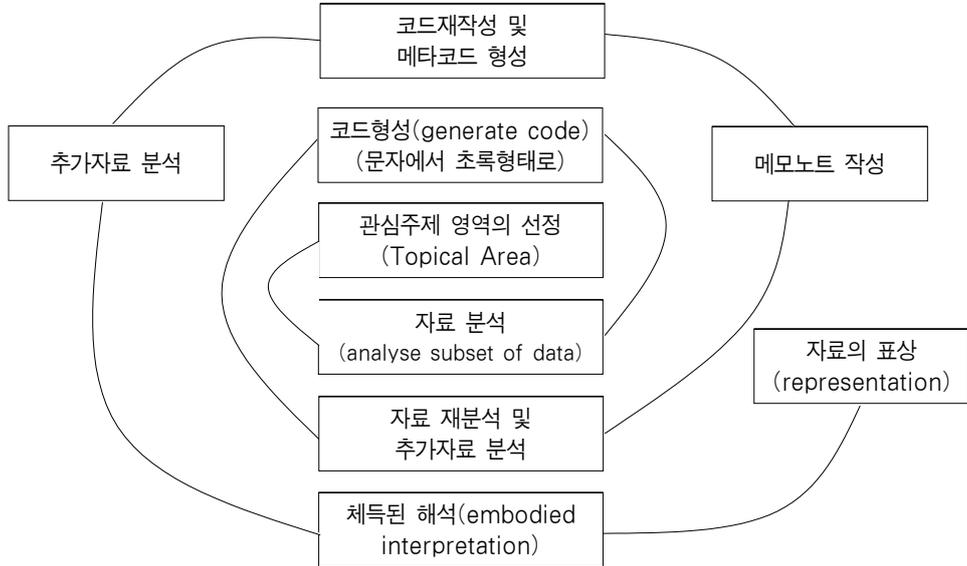
8) 코딩은 메모작성과 함께 근거이론접근(grounded theory)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코딩은 질적 자료의 각 단락의 핵심주제, 패턴, 관념, 개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주로 채택하는 분석전략이다.

에 따라 해석적일 수도 있다. 자료에 대한 1차 코딩이 이루어지고 나면, 2차적으로 심화된 코딩작업이 이루어지며, 심화코딩을 통해 개념형성과 구체화가 이루어진다. 즉, 심화코딩에서는 단순히 자료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범주화(analytical category)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적 구성을 시작하게 된다.

셋째, 자료해석단계에서는 코딩과 메모 작성을 통해 도출된 질적 자료의 핵심 개념, 주제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해석적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메모 작성이 질적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자료의 해석에 있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역학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질적 자료의 해석에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결과해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덕적 흠결 없이 연구결과를 발견했는지, 연구결과가 연구참여자나 연구가 수행된 사회적 맥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고, 자료해석으로부터 이론화를 시도하고, 반대사례를 찾아보고, 연구결과 해석에 대해 합법적인 지식인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뢰성과 관련해서도 내적 일관성과 외적 일관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넷째, 원고작성단계로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혹은 분석 및 해석과 동시에 원고를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실증주의적 관점과 비실증주의적 관점이 대립된다. 연구자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실재가 연구자 밖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식화된 글쓰기가 강조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을 토대로 하는 비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연구발견을 표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즉, 극장공연과 같이 예술과 인문으로부터 글쓰기 장르를 차용하면서, ‘공연과 같은 글쓰기(performative style)’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 글쓰기와 전통적 글쓰기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연구과정에서 상호 활용되기도 한다.

<그림 2> 해석적 연구방법의 연구과정(귀납화 과정)



출처: Neuendorf, K.A.(2001).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Hesse-biber et al. (2006: 290)에서 재인용

요컨대 <그림 2>와 같이 해석적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은 코딩과 메모작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선형이 아니라 상호적(dialectic)이며, 순환적 과정을 통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Agar, 1980: 9). 기존 논리실증주의 연구과정에서는 연구문제의 정의, 선행연구 검토, 가설설정, 연구설계(연구방법), 도구화(instrumentation) 및 표본추출,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론 및 해석, 가설수정 등의 단선적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양적 연구과정에서 가설은 반박과 대안가설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적 연구설계는 인식론과 방법론 간에 긴밀한 연결을 강조하며 가설설정, 자료수집, 자료해석, 결론도출 등이 일방향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해석적 연구는 ‘분석적 귀납화(analytical induction)’를 통한 이론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그것을 해석하고 광범위한 관념들을 검증하고, 다시 추가자료를 수집한다.

IV. 해석적 관점을 적용한 근거이론 분석

1. 근거이론의 의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해석적 관점에 입각한 질적 분석기법의 하나로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여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귀납적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다(Lofland and Lofland, 1995; 권선필, 2006). 즉, 근거이론은 논리적으로 추론된 이론과 달리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 개발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명명된 이름이다(이경우, 2000; 남지원, 2008: 102). 이는 관련 행위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발견하게 하고, 사회적 구조와 개인행태 간 관계를 밝히며, 실천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귀납적 근거이론(inductive grounded theory)은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행위자들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이들로 부터 방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귀납적 이론 도출을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연구참여자로부터 도출된 관찰된 자료에 내재된 일정한 패턴, 주제나 공통의 범주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된다(Glaser and Strauss, 1967; Strauss and Corbin, 1990; Charmaz, 2006)⁹⁾. 요컨대, 근거이론의 핵심은 연구대상에 대해 이론적 틀을 부여하기보다 주어진 맥락과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데 있다. 한국 행정학 분야에서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논문을 쓰는 학자들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가운데, 질적 분석을 많이 시도하는 윤건수(2008: 182)는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을 주관성이 강한 연구와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의 양극으로 나누었을 때, 현상학이 주관적 연구를 대변한다면, 근거이론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질적 연구방법에 비해 근거이론이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기준이나 절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Nam(2009: 36)은 환경과 구조에 직면하는 조직의 행위자들을 “환경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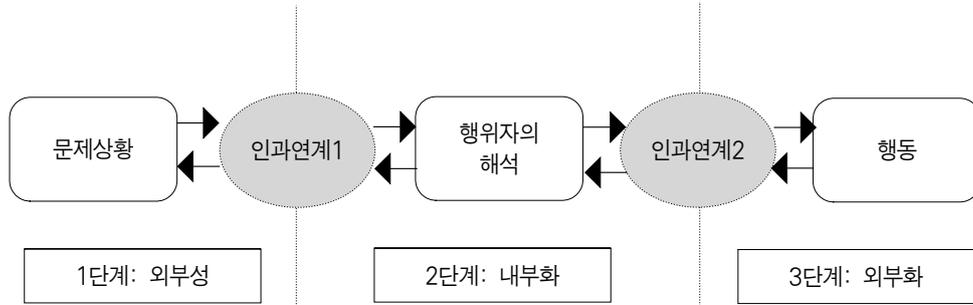
9) 질적인 연구방법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어떤 현상에 관한 귀납적으로 추론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험과 관찰을 통해 획득된 이러한 발견들은 조사된 실체에 대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ormulation)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관찰된 사실들의 개념이나 그들 간의 관계가 생성될 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검증된다(Strauss and Corbin, 1990: 24).

하거나, 재조정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회피하기도 하면서, 창의적이고 탐사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보는 Lofland & Lofland(1995: 145)의 이해에 준하여, 개인들을 사회상황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객관주의적 근거이론을 넘어서, 개인 행위의 역동성을 사회적 상황 맥락 하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주관주의적 근거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어떤 행동의 의미를 당시의 상황과 시간적인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의 인접성(proximity)과 직접성(directness)을 가지고¹⁰⁾ 행위자에게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행위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자는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진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행위자의 행동의 상황 타당화 과정에 대하여 <그림 3>과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행위자가 문제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그 해석 작용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 유발되는지를 나타낸다면 이는 연구자의 모멘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자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즉,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이론에 기반한 연구질문은 유연하며, 행위와 과정을 지향한다. 근거이론의 뿌리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상징과 기호를 통해 전개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있기 때문에, 공공행정 분야에서 근거이론을 통해 밝히기 적합한 연구주제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경험이 맞부딪히는 과정들, 예컨대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관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와의 관계, 혁신이나 평가를 둘러싼 각종 위원회의 활동 과정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윤건수, 2008: 184).

10) 한 현상의 배경은 영항의 인접성과 직접성에 따라서 소상황, 중상황(매개상황), 대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조용환(1999: 105)은 체벌행위가 발생하는 특정교실은 소상황, 교사와 학생이 몸담고 있는 학교라는 중상황, 한국의 교사문화와 학생문화라는 대상황과 같이 **중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3> 행위자의 상황 타당화



출처: Bandura(1997) & U. Kim(2000: 272)의 인과관계변형모형(transactional model of causality)을 변형하여 인용한 Jiwon Nam(2009: 35)에서 재인용.

2. 근거이론의 유형과 절차

근거이론방법은 앞서 논의한 해석적 연구방법론의 일반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 자료의 코딩, 자료에 담긴 의미 해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근거이론에서 관찰대상인 행위자들은 사회적 맥락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가정되며, 행위자들의 일상적 경험들에 근거를 둔 이론 개발은 물론, 전통적인 질적 연구의 장점과 자료분석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記述)을 넘어 주어진 사회적 맥락과 현상에 내재된 여러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Brower, 1995: 44). 근거이론 접근은 크게 객관주의 근거이론(objectivist grounded theory, Glaser¹¹⁾, 1978; Strauss & Corbin¹²⁾, 1990)과 구성주의적 근거이론(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Charmaz, 200

11) 초창기 Glaser & Strauss(1967)의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에서는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discover)하기 위해서 “항시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강조한다. 항시적 비교방법이란, 귀납적인 데이터분석을 의미하며, 근거이론가들로 하여금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론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틀어 궁극적으로 연구방법은 공히 자료를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것(Merriam, 2009)이라고 볼 때, Glaser & Strauss의 초기 아이디어는 비록 소박하더라도, 분석방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들은 연구의 출발이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역적 양적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경험 자료에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경험 자료에 근거한 연구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귀납연구로서 근거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12) Glaser(1978; 1992)가 개방성과 유연성을 통해 자료에 대해 충실한 태도를 강조한 반면, 이후 Strauss & Corbin(1990; 1998)은 경험 자료 분석의 좀 더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절차로서 3단계

6)¹³⁾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Glaser & Strauss(1967)와 Strauss & Corbin(1998)에 의거하여 윤건수(2008: 182)는 근거이론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자료수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즉, 해석적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은 상호적이며, 순환적 과정을 통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자료와 개념, 개념과 이론, 이론과 자료가 지속적으로 연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iteration between data and theory). 넷째,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개념화를 시도하고, 개념들을 묶어주는 범주를 만들며,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후 핵심개념(혹은 중심현상)을 발견하며, 그 핵심개념을 다시 다른 개념이나 범주들과 연결시키면서 이론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수준(saturation point)까지 수행한다.

Strauss and Corbin(1998)에 의하면 질적 자료의 코딩과정은 3단계, 즉 개방(open) 코딩, 축(axial) 코딩, 선택(selective) 코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3단계 코딩과정이 곧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절차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가능한 한 모든 의미들을 명명(label)하게 되는데, 예컨대, 특히 연구 초기단계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행분석(line-by-line)’과 같은 방식을 개방코딩이라고 한다(남지원, 2008). 바꿔서 말하면, 개방코딩이란, 관찰한 현상(혹은 그것을 기록한 텍스트)에서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를 발전시켜 포괄적 개념들로 범주화하고 동시에 이름을 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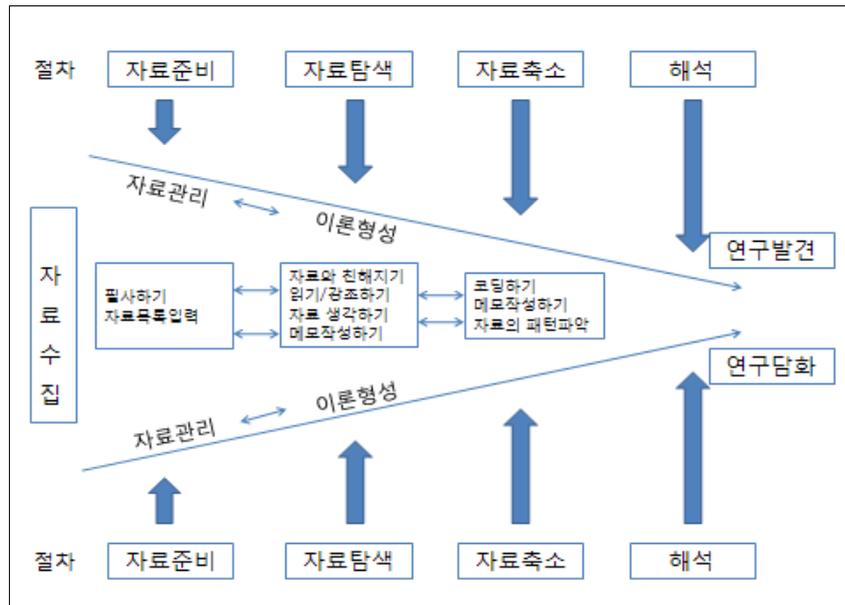
코딩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저작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1998)에서는 1967년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구설계상의 처방이 제시되어 있는데(Creswell, 2002: 441), 이러한 Strauss & Corbin(1990)의 접근방법을 두고, Glaser(1992)는 *Basics of Grounded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에서 “자료에 충실하지 않고, 사전 개념(preconceptions)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이론은 커녕 개념적 설명만 넘쳐난다”라고 비판하였다(Charmaz, 2003: 255).

- 13) Charmaz(2003; 2006)는 앞서 제기한 두 가지 접근 모두 외부적 실재를 가정하면서, 이는 자료의 실제(reality of the data)에 관한 지식이 직접적 관찰에 의해 비롯되고 정당화되는 실증주의 인식론의 연장선에서 탈피하지 못한 객관주의 방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Charmaz(2006: 130)의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에서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의미를 수집된 자료에서 발견된 실체가 아니라, 해석자에 의해 구성되어진 것으로 본다. 결국 Charmaz의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자료에서 실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하나의 실재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실재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작업이다(윤건수, 2008).

둘째, 개념들이 나타내는 현상의 범주화 작업을 '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위범주(subcategory)를 연결지어줌으로써 범주와 하위범주를 재구성하여 조건, 반응, 행동, 전략, 결과 등의 요소를 가지고 중심범주 설명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는 행동이나 사건이 실제 어떻게(how) 일어났는지 과정(process)을 기술하고, 왜(why) 그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구조(structure)로 행위자의 행동을 유발하는지를 하나의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도식화(diagramming)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코딩이라고 한다(남지원, 2008).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하나의 패러다임에 새롭게 자료를 대입시켜보고, 설명을 시도하고 다시 연결하고 분류해보는 등 새 자료와 구축된 이론 간의 재확인 과정을 선택코딩이라고 한다.

<그림 4> 해석적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절차



출처: Hesse-biber et al.(2006: 358)

3. 근거이론을 적용한 자료해석 사례¹⁴⁾

여기서는 교육부 지정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의 도입으로 일선학교가 겪게 되는 경험을 통해 해석적 관점을 적용한 근거이론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2005 ~ 2006년 당시 서울시 소재 교원평가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총 3개교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 관한 ‘윗분¹⁵⁾’들의 속전속결의 도입방식을 교사들이 접하면서, 놀라고 화가 났던 경험을 진술한다. 교사 24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장들의 강한 의지 앞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1) 관리자들의 기습적인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도입방식

“아이들 학습력 높이는 시범학교라서 해서 동그라미를 쳤는데...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력제고”라는 게 교원평가였던 거예요. 이걸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교육력 제고라고 말을 딱 바꿔서 교원평가시범학교 찬성을 하게 만든 거에 대해 울분과 격분을 느꼈고, 속았다고 느낀 순간,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배신감마저 느꼈지만 나중에 교장실에 내려갔다오고 나서 다 동그라미로 바꾸셨죠.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Y학교)

“이런 일의 속성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속전속결이 아니면 어렵지요. 투표를 했냐고요? 전체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투표한 것은 아니었고, 학년별로 서명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투표라고, 그것도 본인서명이 들어간 확실한 투표라 할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그게 뭐 투표냐?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했지요“(A학교)

“이건 아닌 것 같다 반대하고 다시 서명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교원평가 시범학교가 아닌 것처럼 일반 시범학교인 것처럼 물을

14) 이 부분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Jiwon Nam, 2009)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15) 'in vivo coding': 피면접자들이 사용한 용어 그 자체. 여기서는 ‘교장과 교감’을 뜻한다.

수 있냐고...젊은 사람들은 가서 혼나고...다들 울분과 격분을 하셨는데...학교측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에요. 반대는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반대는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몇 분만 강제적으로...몇 분은 이걸 안 된다 말은 했지만 교장실 갔다 오면 다 0표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걸로 그냥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건설적인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글썄.”(Y학교)

A학교 교사의 면담내용에서는 바로 현상이 ‘현상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상황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때 수동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말에 경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언어적인 표현뿐 아니라 맥락적 관점에서 비언어적인 기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석은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피면담자의 냉소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때로는 언어적 의미 정반대로 코딩하기도 하고, 코딩한 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보여주어 확인을 받을 필요도 있다. 예컨대 Y학교 교사 인터뷰의 경우, 관리자들의 기습적인 도입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감정상태를 “울분과 격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가 분노를 경험한 상황을 일찌감치 접고, 나중에는 “그냥 마무리”하면서 동료 교사들의 태도를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건설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분노”와 “그냥 마무리”가 혼재된 상황을 “부조화(dissonance)” 등으로 개념화하고, 이 대목에서 나오는 “긍정”과 “건전”의 개념을 단어 그대로 개방코딩하지 않는다.

질적 연구의 코딩 작업은 언제나 단어의 사전적 의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코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가 심층면접 전반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격분을 하시다가” 갑자기 “긍정적이거나 건전하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연구참여자가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초기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과 자신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초기 감정을 급작스럽게 수정하고 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조직의 비전에 대해 교사들이 공유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지속적인 조직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가? 개인이 의사가 제대로 표출이 되지 않아도 그만인가? 개인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별로 높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연

구참여자가 말한 “교사들이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건설적”이라는 표현이 단순하지가 않으며, 역설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이론에서는 코딩 그 자체와 더불어 연구자의 성찰을 요구하는 이론적 메모(theoretical memo)가 중요하다.

2) 교사들의 교원평가제 반려 움직임 실패와 마지못해 따르기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절차적 정당성 없이 도입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도, 교장실에 불려 갔다 오거나 선후배와 설득의 만남을 통하여 ‘아, 일이 이 정도로 되면 현실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대세겠구나’ 하면서, 학교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이는 어찌면 개인이 넘기 어려운 현실의 벽’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시범학교 수용에 대한 압박을 받게 혹은 적게 받으며 인지적 부조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해결 내지는 적어도 심리적 불안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노력한다. 교사들이 마지못해 시범학교를 수용을 한데 대해서는 상급자와의 관계 등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또한, 교사 개인의 품성과도 관련이 있다. 조직에 이미 한껏 사회화된 교사가 상급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도 만무하지만, 반기를 든다 해도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미리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화 정도가 덜한 신입교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에게는 시범학교 수용에 따른 유공교원 가산점과 같은 손익계산이나 조직에 배태된 국지적 가치 판단 보다는 신입교사들에 대한 선배교사들의 기대, 신참자로서 기존 조직문화인 연공서열의 중시 관행에 동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더 나아가, 현실적 압박을 회피 하려는 특성은 시범학교의 전교조조합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체 3학교의 조합원이 겨우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특이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시범학교 내에서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놀라운 점이 있다면, 비전교조 교사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더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시범학교 시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교조 조합원도 있었다. 다음 인터뷰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 당시 재직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진술이다.

“도입이 비밀리에 되었죠. 비밀리에 했다고 하기는 뭐 하긴 한데...참, 교원평가 시범학교 해놓고 소속교사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실은 그 시범학교 해놓고도 잘 몰라요. 진짜 주변에 별로 알만한 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인터뷰도 정말이지 “감”이나 “느낌”으로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Y학교)

“평가위원은 대부분 부장들이였지요. 저는 교장선생님이 추천해주었어요. 웃기죠? 아참, 전 98년도부터 개인적인 소신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에 대해 교감선생님이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냈고, 선생님들은 그에 반항하는 분위기! 교감선생님은 업무 쪽으로는 제가 볼 때 천재에 가까운 사람!” (A학교)

“선생님들, 반대 많이 하죠. 특히 6학년을 중심으로. 근데 내가 볼 때 상황이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1차로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 부장이 불러서 설득하고, 2차로 교장교감 2분한테 불러가서 다시 설득 들어야 하고, 3차로 선배의 권유, 후배의 권유, 동료들 권유 들어야 하고...짐작이 가지지요? 어떤 분위기인지? 하하...”(C학교)

위 인용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심지어 교원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노조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교원평가제에 대해 무관심·회피·위임으로 일관하는 교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특정 교직단체 소속여부가 초등교직원의 교원평가제 거부의 사유로 귀인되는 것은 아니다. 시범학교 교직원의 심층면접은, 전교조 소속여부를 떠나,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자체에 대해 -교원평가제 자체보다는 학교에 도입하는 절차적 과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종합: 교사의 반응행동과 중재적 조건

위의 인용문들로부터 교사들의 반응행동을 개념화할 수 있는데 교사들의 반응행동은 다분히 조직 내에 배태된 맥락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행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를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0; 1998). 면담자료의 해석을 통해 드러난 중재적 조건들을 예시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교원평가 시범학교 도입단계에서 큰 진통이 있었으나, 여러 중재적 조건들에 의해 교사들이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표 1> 교사 반응 행동에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과 실제 사례

중재적 조건	실제 사례
상급자와의 관계	“교장도 알고 보면 외롭고 힘든 자리예요. 나이 먹어서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잔소리해가며 시켜야 하니까요. 우리처럼 매일 얼굴 맞대야 하는 교감이나 부장들한테 교장 선생님 당신께서는 얼마나 친밀하다고 생각하시는 데요. 거기다 대고 반대의 말을 하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군사부일체라...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존대받는 존재로...”
승진 점수 (시범학교 유공교원 가산점)	“시범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시범학교와 교육부시범학교가 있는데 교육부시범학교의 점수가 서울시 시범학교의 두배라는 것은 선생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진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바로 이 시범학교에서 생기는 부가점수입니다.”
교사의 직급 (승진에 대한 민감도)	“부장이라는 보직은 교장선생님이 임명하는 것이어서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제안 하시면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장을 한다는 것은 승진점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교사의 품성	“그러니까, 웬 만하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초등교사 중에 그렇게 할만한 이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좋은 거라고...”
업무의 질과 양의 관계 (잡무 문제)	“이거 뭐 학생 지도 잘하라고 교원 평가하는 건데 순전히 보여주기 위주로 서류 작성만 잘하면 되고요. 예전에 비해 무엇이 늘어났기에 학교선생님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지 말어요. 행정업무가 다 교사들에게 넘어오고 저는 수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거나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서류를 만들라고 교장감이 지시하면 부아가 치밀어요.”
계층적 통제	“[교원평가 하고 안하고는] 기관장 전권이고 학교 특색 사업입니다. 반대 의견 내는 사람은 교감선생님이 그건 방침과 다르다면서 아예 선생님들 입도 못 떴게 했어요.”
상급자의 전략과 태도	“관리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안 준다고 까지...말씀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학부모요인	“학부형들이야 당연히 교원평가를 찬성하지요.”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원평가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엄마들은 남교사에게는 잘 해주는데 같은 여자끼리는...”
동료교사와의 관계	“동료평가의 기준은 나랑 친한 사람이나 아니냐 그거 아니었어?” “딴 사람들은 어쩐지? 웬 만하면 튀는 행동 안 하려고 노력하죠.”
학생요인	“반발심 많고...늘 불안인 애들이 있거든요...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소신껏 애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런 애들 초기에 컨트롤 해야 하는데...지금은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아이들도 예전만 하지 못하여...교사들이 옷을 벗겠다는 각오가 없는 한,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한계를 느끼지요.”

겪으면서,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눈앞에 바빠 돌아가는 ‘주어진’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조직현실 속에 묻히고 만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개인 측면에서는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고, 조직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무엇을 더 알고, 깨닫고, 배웠는가?

그 동안 기능주의적 패러다임과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둔 전통행정학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관리주의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연구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켰고,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었다. 시민의 요구, 하위직의 순응과 같은 다양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전통행정은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부적절하거나, 정책문제가 소수의 정책전문가의 입장에서 너무 단순하고 좁게 규정되거나,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대중의 참여나 협조가 부족할 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전통행정학에서는 대체로 공익을 시민들의 경험과 지각의 주관적 실체를 넘어서 존재하는 객관적 현상으로만 이해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행정학은 다양한 가치관과 인식을 가진 시민사회와 시민공동체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복잡한 사회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도구적이고 합리적 정향을 지닌 전통행정학은 기대하지 못한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행정적 활동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역동적 상호작용을 보이게 되는 행정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관점을 넘어 해석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해석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실체를 여러 행위자들의 인식과 관점에서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해석적 연구에서는 ‘세상-개념-이미지-언어’ 사이의 현상학적 환원과 해석학적

순환에 충실하면서 하나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더 알고, 깨달았는지를 강조한다(조용환, 2008). 상호 주관적 이해과정으로 엮여진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적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행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 근거이론접근은 관찰된 사실에 기반을 둔 이론을 탐색하고 도출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어떠한 문제를 둘러싼 핵심적 이슈와 행위자들의 역동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연구의 중점이 아닌 새로운 시점으로서, 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질문(writing as inquiry)으로서, 미완의 진행형으로 제시된다(조용환, 2008). 근거이론의 뿌리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상징과 기호를 통해 전개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있기 때문에, 행정연구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경험이 맞부딪히는 과정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거이론은 의미로운 연구기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해석적 연구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단일의 연구과정이나 설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해석적 연구는 응답자의 특성, 연구가 수행되는 맥락 등에 따라 상황의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단일의 해석적 연구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양적 패러다임으로의 귀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제 행정현장에서 해석적 연구방법들을 실행하는 연구자들이 어떠한 연구과정과 연구설계를 채택하는지에 관해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즉, 해석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연구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석적 연구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무엇이며, 해석적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양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의 발전과 비교해 볼 때 해석적 연구에 있어서도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방법론적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해석적 연구방법을 보다 세련화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연구에서 해석적 연구방법의 적용은 행정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주관적 이해와 경험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민주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반응적인 정부는 시민이 공익의 시작점이고, 시민참여가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정책속의

(policy deliberations)는 많은 대중에게 점차 개방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 숙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숙의과정에 대한 참여는 정책결정의 도구적 가치 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에게 본질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선형적이고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해석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선필. 2006. “근거이론을 통해 재구성해 본 지방정부 하급 공무원의 혁신 수용현상에 관한 해석과 함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4): 45-67.
- 남궁근. 2004.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 남지원. 2008. “조직구성원의 정책대응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K’초교 교원들의 교원 평가시범학교 대응에 근거한 정책집행 심의.” 《한국조직학회보》 5(2): 89-141.
- 소영진. 2004. “행정학에 있어서 현상학적 방법의 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보》 38(4): 1-20.
- 설동훈. 2007. “질적연구방법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GSPA-SD 발표자료.
- 신혜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 심준섭. 2008. “행정학 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합.” 《한국행정연구》 17(2): 3-31.
- 오명호. 1995. 《정치학 방법론》. 박영사
- 윤건수. 2008. “질적 연구의 다양성과 공공조직 연구의 확장.” 《한국조직학회보》 5(3): 163-198.
- 이경우. 2000. “간호연구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 혜전대학
- 조용환. 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 _____. 2008.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사회과학 대학원 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법 특강자료.
- Agar, M. 1980. *The Professional Stranger: An informal introduction to ethnography*. New York: Academic Press.
- Bell, L., and L. Nutt. 2002. “Divided loyalties, divided expectations: Research ethics, professional

- and occupational responsibilities.” In Mauthner, M., Birch, J. Jessop, and T. Miller, eds. *Ethics in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 Brower, S. Ralph, Mitchel Y. Abolafia, and J. B. Carr. 2000. “On improving qualitative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dministration and Society*, 32(4): 363- 397
- Brower, S. Ralph. 1995. *Everyday Forms of Bureaucratic Resistance: An Ethnographic Investig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SA.
- Charmaz, K. 2003. “Grounded Theory: Objectivist and Constructivist method.” In Denzin, N., and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09-535. CA: Sage Publications.
- _____.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 Qualitative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Gay, L. R., and P. Airasian. 2003. *Educational Research: Competencies for analysis and application*(7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Gergen, Kenneth R. 2007. *An Invitation to Social Construction*. SAGE Publications.
- Glaser, Barney, and Anselm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Glaser, Barney.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_____. 1992. *Basics of Grounded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l of Sociology*, 91: 581-510.
- Guba, E. G. and Y. S. Lincoln.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Harding, S. 1987. *Feminism and method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Hesse-Biber, Sharlene Nagy, and Patricia Leavy. 2006. *The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Jun, Jong S. 2004. *The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Kim, Uichol. 2000. “Indigenous,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A Theoretical, Conceptual, and Epistemological Analysi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65-287.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6. "But is it rigorous? Trustworthiness and Authenticity in Naturalistic Evaluation." In Williams, D. D., eds. *New Directions for Program Evaluation: Naturalistic Evaluation*. CA: Jossey-Bass.
- Lofland, John, and Lyn H. Lofland. 1995. *Analyzing Social Settings: A Guide to Qualitative Observation and Analysis*(3th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Merriam, B. Sharan. 2009. "Qualitative Research", Presented documentation at GSPA-S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rch 20.
- Meyer, J. and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63.
- Nam, Jiwon. 2009. A Grounded Analysis of Organizational Actors' Strategic Responses to Policy: Korean Primary School Teachers' Responses to Teacher Evaluation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OK.
- Neuman, W. 2003.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5th ed.). Boston: Allyn & Bacon.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 Sage Publications Inc.
- _____.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CA: Sage Publications Inc.
- Tarrow, Sydney. 1995. "Bridging the Quantitative the Quantitative-Qualitative divide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 Weick, K. E. 1993. "The Collapse of Sensemaking in Organization: The Mann Gulch Disast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4)
- Yanow, Dvora, and Peregrine Schwartz-Shea eds. 2006. *Interpretation and Method*. New York: M. E. Sharpe.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 현황
http://assembly.mest.go.kr/policy/plc_psn_read.jsp?srchSel=assembly_title&srchVal=교원평가&cp=1&assembly_gubun=17&assembly_mainno=1727